

## 여성문학연구 어제, 오늘, 내일

서 정 자\*

기조연설<sup>1)</sup>을 해 달라는 회장의 요청을 받고 열결에 승낙은 하였으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방향이 잡히지 않아서 적지 않은 시간을 그냥 흘려 보냈습니다. 그것은 어떤 연유로 후배 여성문학연구 학자들이 저를 이 영광된 자리에 세웠는지 알지 못한 탓이기도 합니다. 물어 보기도 뭣해서 제가 여성문학연구를 좀 먼저 시작한 때문이 아닌가 짐작해 보았습니다.<sup>2)</sup> 그런 이유라면 후배 여성 문학 연구 학자들의 겸손과 용기(?)에 대하여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학회의 대외 이미지를 위하여 우리 학회 임원들은 유명한 학자를 얼마든지 모셔 올 수 있었을 터입니다. 권위와 형식을 포기하고 무명의 저에게 기조연설을 하는 영광을 베풀어 준 한국여성문학학회 여러분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탈 권위와 탈 형식을 감행(?)했다고 여겨집니다. 제목을 여성문학연구의 어제, 오늘, 내일이라고 거창하게 붙이기는 했지만 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라는 말을 인용할 것도 없이 저는 오늘 제 자신이 여

---

\* 초당대 교수

- 1) 동아 국어사전에 의하면 기조연설이란 ① 정당의 대표가 자당의 기본정책을 설명하는 연설, ② 국제적인 회의 등에서 회의의 벽두에 회의의 기본 정신과 성격 진행의 방향 등을 설명하는 연설이라고 되어 있다.
- 2) 후배 학자는 나를 두고 상징이잖아요, 그랬다. 여성문학연구만 해 온 사람이 그러고 보니 그리 혼치 않다.

성문학연구를 해 오는 동안 느낀 점들을 매우 사적이고 주관적으로 말씀 드림으로써 여성문학연구에 정진하는 후배들의 애정에 답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새 천년의 시작을 불과 석 달 앞두고 있는 이 시점은 여러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민주화, 개방화 다원화 사회로 그 구조가 급변하고 서구적 합리주의와 뚜렷한 자기 주장으로 무장된 신세대 집단이 등장하고 있는 오늘의 사회 현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 방면에 걸쳐 정밀한 검토와 해석이 이루어져야 내일을 전망할 수 있는 특이하고도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여성, 감성, 가상(Female, Feeling, Fiction)의 3F시대라는 21세기에 그 지위가 크게 부상하리라는 전망이 있고 보면 오늘의 우리의 좌표를 점검하고 내일을 전망하는 일은 무한히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와 같이 급변하는 현실을 해부하여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전망할 능력도 없거니와 제 범위를 넘는 것이기도 하여서 다만 제가 해 온 일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에 대한 저의 管見을 말씀 드림으로써 이 학술대회의 기본정신과 성격, 방향을 설명하는 일에 대하고자 합니다.

문학과 삶은 상호 침투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자가 무엇인지 알고자 여성문학연구를 시작했던 저의 소박한 시도는 세계 여성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여성문학연구에 매달리게 한 것은 저 나름의 여성 체험에 의한 것이었고, 다만 여성이라는 산을 넘어보려는 의지 하나로 여성문학연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저를 뜻밖에도 여성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여성학을 공부한 바 없는 제 세대는 수 천년에 걸쳐 축적되고 깊이 뿌리가 내린 고정관념이 요지부동하게 자리하고 있는 거대한 여성세계(남성세계가 아니라)의 표면장력<sup>3)</sup>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

3) 이 여성세계에 대한 낯설음은 나만의 것인지 모른다. 네 명의 남자 형제 속에 여자 하나로 성장한 나는 여자들의 세계에 대하여 상당히 무지했다. 아버지가 차남인데다 집안을 일으킨 분이어서 시집살이를 해 본 적이 없는 어머니 때문

일인지 알 턱이 없었지만, 막연하나마 쉬운 일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당  
치 않은 우월 의식으로 주부, 아줌마의 세계를 알보았던 저는 “여자인  
무엇인가? 사람이 되려면 여자가 먼저 되지 않고서는 길이 없겠다.” 그  
렇게 항복을 한 것입니다. 나혜석의 “여자도 사람이다.”의 주장을, 순서  
를 뒤집어 인식한 것입니다. 저는 이 때 남성중심 사회의 시각에 길들여  
져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여성의 우월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하나 제게 충격을 주었던 일은 주부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의 대접  
이었습니다. 저는 주부로서 소박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사회적으로 아  
무런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부로서는 사  
회에 설자리가 없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꼈다면 제가 이상주의자라는 것  
을 눈치채실 것입니다. 오늘날 저는 사회의 밑바닥이라 할 주부에서 만  
학으로 감히 거룩한 ‘학자’의 길에 올라 있는 셈이니 남성중심주의의 시각  
으로 보자면 꽤 꽤 씁쓸할 일입니다. 그러나 여성문학연구를 택할 때의 제  
마음은 학자로 대접을 받지 못해도 좋다, 교수가 되지 못해도 좋다,이었  
습니다. 많이 늦게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한 저는 종교적 회심에 해당  
할 이 각성으로 여성문학연구를 선택합니다. 여성문학이라는 용어 자체  
를 인정하지 않는 학계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의 연구를 말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턱없는 만학에 여성문학연구를 고집하는 저를 敬而遠之하는  
분위기였으나 저는 여성작가들이 어떻게 여성을 살았는가 그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여성의 세계로 진입했으며 또 살아남았는  
가.

여성세계로의 진입,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인의 작업으로 시작한 여성

---

에 나는 누구나 다 알만한 여성 세계의 불문율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  
다. 여성세계의 표면장력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부정적 의미에서 여성들이 형성  
하고 있는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동류가 아닌 자에 대하여 매우 배타적이다.  
이러한 여성들의 표면장력에 고통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이선희의 단  
편 「연지」가 있고 보이지 않는 여성들의 표면장력을 무시하고 소신대로 후처의  
자리를 만들어 가는 이야기로 임옥인의 단편 「후처기」가 있다.

소설 읽기는 여성소설 찾기로 시작해야 하였습니다. 황무지에서 작가의 작품을 확인하고 찾는 일부터 시작해 본 저는 여성문학이 얼마나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팽개쳐져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여성작가와 작품이 받고 있는 이러한 부당한 홀대는 곧 저를 비롯한 여성의 현실을 웅변으로 설명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란 무엇인가를 알기 전에 저는 여성이 사회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를 먼저 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문학도 그렇지만 여성문학연구도 자연스럽게 페미니즘 성격을 띠게 됩니다. 페미니즘 문학이론이 본격적으로 수입되기 전이어서 실증적인 작업을 중심으로 퍼즐게임과도 같이 연구를 해 나갔습니다. 여성문학에 대한 선행적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작업을 해야 했으므로 두서없이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이 실증적 작업을 통해 저는 구한말부터 수입된 여성해방사상을 참고하지 않은 우리의 근대 문학연구는 편파적이고 독단적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문학을 용인하지 않더라도 실증적 차원에서 우리문학 연구는 이 부분을 보완해야 합니다.<sup>4)</sup> 너무나 당연한 일이 외면되어 왔습니다. 또한 여성작가에 대한 스캔들이 얼마나 남성중심의 시각에서 마음대로 해석된 것이며 그럼에도 이들을 이해하려는 아무런 시도가 없었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이를 경악, 그것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1910년대 여성작가들의 삶을 여성사상과의 관련 속에서 새롭게 살려낼 수 있었던 것은 페미니즘적 시각이 이론 성과일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작가로서 나해석의 중요성을 밝혀낸 것도 보람있는 일 중의 하나였습니다.

여성작가의 작품을 찾아 정리해 놓고 죽겠다, 그것으로 저의 보람을 삼겠다 하고 하면서 제 뒀에는 꽤 비장한 자세로 작업을 하였는데 페미니즘의 물결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정치성이 강한 여성문학, 여성문학 비평의 경우, 그런 점에서 계몽주의적 성격이 강합니다. 여성문학 이론

4) 그런 점에서 최혜실 교수의 근대성 규명의 연구들은 주목된다.

은 지난 10여 년 동안 현란할 정도로 다양하게 그리고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여성 정체성 자체가 정의하기 어렵고 여성 문제 역시 실로 다양하고 복잡한 만큼 여성문학 이론은 수없이 생성되고 수입되어 왔습니다. 페미니즘 문학 이론은 정치학과 미학의 지양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오늘날 페미니스트 시학 쪽으로 보다 많이 기울어지는 추세입니다.<sup>5)</sup>

1980년대에 여성계는 여성학 강좌가 개설되고 한국여성학회가 발족되며 『여성』(여성편집위원회), 『여성운동과 문학』(민족문학작가회의 여성문학분과회의), 『또하나의 문화』(평민사), 『여성문학』(전예원), 『여성과 문학』(한국여성문학연구회) 등이 발간되며 『여성신문』이 창간되는 등 괄목할만한 여성활동이 벌어졌습니다. 저로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는 청탁 논문 쓰기로 연구를 대신하다시피 10여 년을 훌쩍 보냈습니다. 페미니즘이 인기 유행사조가 되었다는 반증입니다. 그 10여 년, 즉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후반의 10여 년은 세계사에서, 또 한국사에서 매우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는 변혁의 시대이면서 페미니즘 역시 창작과 비평 양쪽에 걸쳐 놀라운 팽창력을 보여 준 시기이기도 합니다. 최근 여성문학 연구 성과를 조사해 보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sup>6)</sup> 제가 여성 작가와 작품을 집중 연구하던 1980년대에는 여성문학을 주제로 한 학위 논문이 열 손가락에도 채 미치지 못했던데 반해 1990년대에 들어 여성 작가의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한 석·박사 논문은 엄청난 숫자를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경애의 경우,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학위논문만 49편이었습니다. 페미니즘을 주제로 한 학위 논문도 100편이 훨씬 넘어서 있었습니다. 유수의 여자대학교에서는 여성문학도서관을 따로 마련하기 위해 학자들에게 논문 및 저서 기증을 의뢰해 오고 있습니다. 여성문학과 여성문학연구의 저변 확대가 적잖은 두께로 형성되고 있으며 여성

5) 엄청난 페미니즘 문학이론을 체계 있게 정리한 저서로 김미현의 『한국여성소설과 페미니즘』(신구문화사, 1996)이 있다.

6) 선행 연구자는 후진의 연구 상황을 찾아 살피지 않기 쉽다.

문학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학계의 분위기라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제 훌륭한 여성문학연구자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능과 열정을 겸전한 문학박사들이 여성문학연구에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들의 이름과 업적을 다 언급하지 못합니다만 그들에게 우리 여성문학연구의 내일이 있고 또 크게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페미니즘 문학에서 정치학과 미학을 함께 추구하는 자세가 아니라면 여성문학연구는 형식주의 문학연구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지난 학술대회에서 이상경 교수가 지적했다시피 체험의 직접성을 바탕으로 문제를 여성 일반의 문제, 즉 사회적 관계 속에서 여성문제를 보는 시각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페미니스트 시학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여성이 처해 있는 지금 여기의 현실입니다. 저는 여성문학연구가 거대한 표면장력을 이루고 있는 존재라고 느꼈던 여성들의 실제, 여성의 체험과 무관해 지고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그 침묵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언제인가부터 페미니즘 문학이론서를 읽는데 게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우리의 페미니즘 문학이론을 만들어내야 할 시점에 와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페미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책을 읽어내고 페미니즘 문학 이론을 받아들여 소화하기에 여념이 없는 동안 상업주의는 페미니즘에도 손을 뻗쳐 왔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정보화 사회가 밀고 들어왔습니다. 여성은 정보화 사회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이라는 장미빛 청사진은 사실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 문화의 산업화와 가상 공간의 탄생은 문학을 점차 주변으로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율의 증가와 가정의 해체, 성 개방 풍조 이런 것들을 초래한 주범으로 페미니즘, 또는 페미니즘 문학이 공공연히 지목되고 있습니다. 유사 이래 처음 여성문학연구의 저변 확대가 이만큼 이루어진 오늘은 어떤 의미에서 페미니즘 문학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새 천년의 시작을 앞두고 저는

여성문학연구의 내일을, 그리고 여성문학연구가 저에게 또 여성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여성을 알기 위해, 또 만나기 위해 여성작가의 작품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자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결론 지으며 저는 아연합니다. 여자로서 저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을 어찌면 저는 포기하고 있거나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나이에 이르러도 여성은 제 앞을 거대하게 가로막고 있는 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성은 제게 영원한 미스터리요, 극복할 수 없는 명제로 남을는지 모르겠습니다.<sup>7)</sup> 여성문제는 참으로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이 문제는 여성이 풀어 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1991년의 한 심포지엄에서 저는 한국의 노라는 아직도 1930년대를 그 주소로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sup>8)</sup>만 필리스 체슬러는 젊은 페미니스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21세기가 다가오는 지금 우리는 여전히 1930년대에 살고 있다. 버지니아 울프는 지금도 바다에 나가 익사하려고 하고 있으며 카미유 클로델은 지금도 포박 당한 채 정신병원에 끌려가고 있다”고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조혜정 교수도 ‘이제는 남자들이 나설 때’<sup>9)</sup>라는 말로 여성운동에 대한 절망감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간개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116개국 가운데 인간개발지수가 31위이며 여성권한 척도는 90위라고 합니다. 유례없이 남성중심적 사고가 뿌리 깊은 한국에서 여성문학과 여성문학연구가 감당해야 할 몫은 많고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여성의 문제

---

7) 나는 내가 헛웃음을 웃고 사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다. 쓸데없이 말하기 전에 또는 말하는 끝에 ‘허공에 흩어지는 웃음을 웃는다’고 가까운 사람이 일깨워 주었다. 이것은 나의 여성으로서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왔다. 나는 아직도 두려운 것이다. 여성답게 말하기, 상대방의 기분을 거슬리지 않으려고 띄우는 웃음……이 사실 앞에 나는 절망감을 느꼈다. 페미니즘 공부 20년인데 아직 이 모양이다. 웃음은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상품적 성격이 있구나.

8) 서정자, 「1990년대 페미니즘 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한국여성문학과 페미니즘」, 『아세아여성연구』 제29집(숙대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1990), p.189.

9) 조(한)혜정, 『성찰적 근대성과 페미니즘』(도서출판 또하나의 문화, 1998), p.34.

는 여성이 풀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의 체험을 바탕으로 여성에게  
씩워진 굴레를 벗겨나가 진정한 인간 여성으로 설 때까지 여성문학과 여  
성문학연구자들은 꾸준히 숨겨진 여성의 목소리를 드러내어 뿌리깊은  
남성중심 사고의 사회에 부단한 새로운 충격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  
다.